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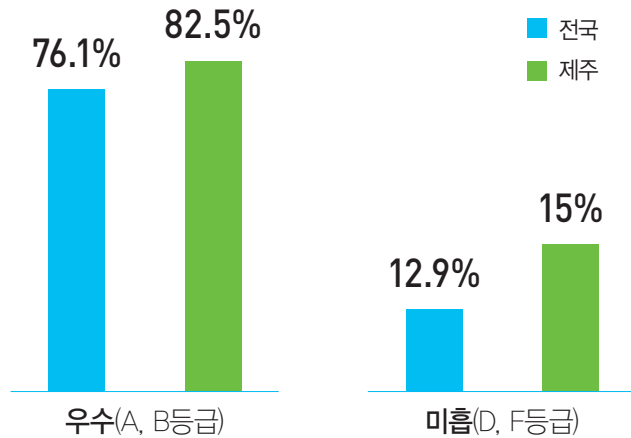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제주 복지시설 수준 전국평균 웃돌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달 15일 아동복지시설 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개소를 대상으로 2013~2015년 운영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전평가('13년 85.2점, 1014개소)와 비교해 평가대상은 867개소 증가하고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0.5점 하락했다. 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시설의 평가 결과가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



전체 수준 상향추세... 신규·소규모시설은 낮아
제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두 우수(A, B) 등급

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고루 이뤄졌다.

최종등급 분포는 전체 1881개 시설 중 우수등급

(A, B)이 1431개소(76.1%)로 상향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등급(D, F)은 242개소(12.9%)를 보였다. 제주는 총 40개소 평가

대상 중 우수등급 33개소(82.5%), 미흡등급 6개소(15%)를 받았다. 전국평균보다 우수등급 비율이 높지만 미흡등급을 받은 곳도 전국평균을 상회해 시설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등급 비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91.5%), 장애인거주시설(74.7%), 장애인재활시설(71.7%) 순이다.

제주지역만 살펴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0%), 아동복지시설(83.3%), 장애인거주시설(76%)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타 지역 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희망2017 나눔캠페인 최단기 목표액 달성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달 1일 도청 현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종료에 따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된 이번 모금은 캠페인 시작 65일 만인 지난 1월 25일에 목표 모금액 40억 원을 초과했다.

이번 제주에서 모금된 총 금액은 43억 2897만 원으로 이는 1999년 희망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단기 목표 모금액 달성과 함께 최대 모금액을 기록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서비스 확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요금 인하까지

제주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영을 연중무휴, 24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달 1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1·2급 장애인과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이동지원차량 4대와 임차택시 4대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제한적으로 운행하던 것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이용요금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중형택시요금의 25% 수준으로 운행거리에 따라 지불하던 기본요금 1000원, 최대 8000원은 대중교통요금을 감안한 적정 이용 요금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이용자격이 없던 뇌병변 등 3급 장애인 중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도 향후 심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 휠체어장애인이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공).

했다.

한편, 2010년 11월 5일 설립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원차량 4대로 시작해 현재 40대의 이동지원차량과

비 휠체어 장애인 임차택시 4대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이용객은 전년도 대비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면소개

종합	3면
장애인, 제주 관광하기 쉬워진다	
특집	4면
제5기 전문위원회 소개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기획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8)	
기획	8면
시설탐방(85) - 제주시농아복지관	

JDCar 를 대여해 드립니다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JDC 지원으로 '복지용 특장차량(JDCar)'을 대여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3회 우수조례상 수상

강성균·김경학 의원 ‘우수상’, 김용범 의원 ‘장려상’

제주도의회는 지난 달 4일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하혜수)가 주관한 제13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 강성균·김경학 의원이 우수상을, 김용범 의원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총 망라하여 우수조례를 발굴, 개인 및 단체 부분으로 나눠 시상한다.

제13회 우수조례상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동안 이뤄진 의원발의 조례 가운데 창의성, 합법성, 시행 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 범위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

구활동 등을 중심으로 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 특별위원회가 심사해 선정됐다.

이번 수상한 우수조례는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른 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의 진로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강성균 의원), 전국 최초로 제주형 재정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기여한 점(김경학 의원), 도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을 통합 운

영하도록 개선한 점(김용범 의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3년 연속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 제12회 우수조례상에는 좌남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김경학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24곳으로 확대기로

제주도, 방문상담 전용차량 지원... 사업비 40% 인상

제주도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24개소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달 12일 밝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신설, 찾아가는 방문상담·민관협력 활성화·통합사례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년도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3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복지허브화는 올해 제

주시 9개소, 서귀포시 7개소에 추가로 구축해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업비를 40% 인상하고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복지허브화 전용차량 지원과 함께 복지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8개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방문상담 3895건, 자원발굴 474건, 자원연계 62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찾아가는 방문상담인 경우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호응도가 높고 복지담당 공무원들 또한 업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주 복지청소년과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확대 추진해 읍면동 중심의 사례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도, “올해 ‘장한장애인’ 대상자를 찾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월 21일 까지 올해 ‘장한장애인’ 대상자를 추천받겠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도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기관·단체를 발굴해 매년 장한장애인을 선정하고 있다.

장한장애인 추천은 행정시장, 제주도장애인단체장,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이 하거나, 도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현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장한장애인 대상은 4개 분야 6명으로 장애인 대상 1명, 장한아버지 대상 1명, 장애인도우미 대상 2명(개인·기관·단체), 장애인복지 특별상 2명(개인·기관·단

체)을 선발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 정부포상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 대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시,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2017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4일(금)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2016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이다. 다만 2016년에 읍면동에 교육비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또는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이뤄지면 제주시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를 결정한다.

기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 없이도 소득·재산 재조사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타 법령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구도 빠짐없이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상에 하나도 없는 나눔”

2월 기탁 현황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32kg	▲금강축산유통=돈육72kg
▲김치원=김치22kg	▲꽃비나리는뜨락=떡514개
▲던킨도너츠제주외도점=도너츠75개	▲동원F&B제주=동원식품1,728개
▲모양=제과류35개	▲빠라빠빵=식빵72봉
▲서문식품=두부358개	▲아라어린이집=쌀90kg
▲얌얌영농조합법인=빵11봉	▲오뚜기=라면등3,798개
▲이든이네=건멸치9kg	▲자연드림이도점=빵228봉
▲제주보리촌=보리빵690개	▲캣어클락=식빵38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200개	▲행복나눔마트노형점=세탁세제60개
▲행복나눔마트오라점=빵186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620,000	3,18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55,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1,385,000	4,765,000
복 지 사 업 후 원	935,000	440,960
푸 드 마 켓 후 원	4,710,000	106,2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경운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장애인 등 제주 관광하기 쉬워진다

5년 간 총 55억 투입...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제주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달 21일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총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영관광지의 경우 관광약자의 관광수요가 많은 관광지과 유료 관광지를 우선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18억8000만원을 투자한다.

시설관광지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우수관광사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을 투입, 화장실과 주차 출입로 정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음식점은 관광식당, 모범음식점, 우수관광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되 시설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업체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숙박업소는 일반숙박업을 중심으로 우수관광사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약자 전용 객실을 운영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호텔업 등급 현장평가 기준에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기준, 이동로 확보 등의 평가지침을 강화해 운용한다. 예산은 3억9000만원이다.

관광약자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전세버스의 경우 5년 동안 10억원을 투자하되 이용객 증가추세에 맞춰 연차별로 지원하고, 렌터카는

가족단위 관광약자 관광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 2021년까지 7억원을 투입해 리프트 승합차를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등을 거쳐 3년간 인증을 해주고 관광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관광약자 안내·홍보·서비스교육 추진계획도 포함된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앞으로 관광약자 등의 관광향유권 확대와 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물 없는 제주의 관광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차롱’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경실·고관용)는 지난 달 18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및 메이즈랜드 일대에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차롱’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함께하는 우리, 더 많은 희망을 전합니다’란 주제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

여 지역의 복지리더로서 청렴결의를 다졌다.

또,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추진내용과 올해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타 읍면동협의체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의 복지리더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7면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도지사 초청 간담회 실시

제주광역푸드뱅크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섭)는 지난 달 13일 아람가든에서 ‘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

원희룡 도지사,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 제주광역푸드뱅크운영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식품기부제공사업 발전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경섭 운영위원장은 “다양한 품목의 기부식품제공처를 확보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며 “현재 증가하는 기부식품 물량에 비해 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협소하고, 실무자 한명이 모든 일을 전담하고 있어 인력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식품기부액 20억원 초과라는 큰 업적을 달성

한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안된 부분에 대해 관련법 검토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9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2016년도 감사보고, 업무보고와 함께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이 부의되어 심의됐다.

감사보고 결과 재물조사 미실시와 복지용특장차량 대여사업 홍보 미흡 등을 지적 받았고, 업무보고에서는 2016년도 회원현황,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2017년도 정기이사회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전문위원회 복지기금 후원



제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소속 제4기 자원봉사전문위원회(위원장 김순호)는 지난 달 14일, 바람소리홀에서 제주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기금 100만원을 협의회에

전달했다<사진>. 고치환 회장은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자원봉사위원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 추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에너지공사 지원을 받아 ‘2017년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고를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

시설 20개소를 선정, 3월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최종설치가능 여부를 따져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회복지시설에는 오는 6월까지 10Kw 태양광설비가 설

치·보급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전문지식·경험 풍부한
5개 분야, 36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23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제5기 전문위원회’ 합동 위촉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위촉식에서는 사회복지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사연구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사회복지시설위원회 5개 분야 3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협의회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대학 교수,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지난 달 28일로 임기를 마친 제4기 전문위원회는 5개 분야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제4기 전문위원회별 활동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사회복지아카데미·초등학생 복지교육·원어민 외국어교육 운영) ▲조사연구위원회(제주협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제주복지원탁회의 개최) ▲자원봉사위원회(자원봉사활동지원, 봉사자·인증요원 선진지탐방,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명예의전당 운영) ▲사회복지시설위원회(직능별 회원시설 우수 근무자 해외연수, 사회복지의날 기념사업, 나눔대축제 개최, 복지용특장차량 지원사업) ▲사회복지정책위원회(조례 제정·건의, 제주복지원탁회의 공동주관, 제6대회장 공약이행 사항 점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치환 회장은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동력”이라며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창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각 위원회별 기능 및 위원소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위원장

윤홍기(이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도민의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관련된 사항,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 원

**교육
위원회**

강정인(아가의집 사무국장)
고경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박미란(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손복향(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이미정(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최만제(세화요양원 사무국장)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위원장

고보선(이사, 제주국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조사연구·정책개발, 기타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 원

**조사연구
위원회**

강호철(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도영(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지원센터 소장)
김진훈(세모바퀴재가장기요양제공기관 대표)
문현주(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심경수(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오윤정(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사회복지관련 정책 토론·제안



위원장

양창오(이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사회복지관련 조례, 법령개선 등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안사항, 기타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 원

**사회복지정책
위원회**

고수희(평안전문요양원장)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이재문(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원장)
임철남(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관장)
정석왕(제주장애인요양원장)

사회복지시설단체 의견 수렴



위원장

윤세찬(서호요양원장)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직능별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기타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 원

**사회복지시설
위원회**

김혜란(제주도농아복지관 사무국장)
백인협(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원장)
부재옥(이사, 동광효도마을 원장)
안명희(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이흥기(이사, 정혜재활원장)
조영숙(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장)
최순영(제주인권연대여성상담소장)
홍은주(주사랑 요양원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위원장

원석철(이사, 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장)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조정자(관리자)의 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 원

**자원봉사
위원회**

강옥련(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고태언(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김상현(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센터장)
김홍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과장)
윤보철(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지영(더희망제주 사무국장)

● 소/식/마/당

문화체험 수학여행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는 지난 달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센터이용아동과 보호자 50명을 대상으로 김해지역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가야를 통해 한반도의 시작을 보다'라는 주제로 김수로왕릉,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테마파크, 봉하마을 등을 돌아보고 김해천문대, 분청자기박물관 등을 다니며 제주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들을 체험했다.

'더불어 숲'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시내호텔에서 '더불어 숲'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불어 숲'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브랜드로 장애당사자 13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강사의 강의시연과 사업 계획 구상, 정기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 등이 이뤄졌다.

스스로 기획하는 역사체험여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역사체험여행 '나의 역사·문화답사기'를 진행했다.

도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역사체험여행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우리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아동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군산·전주·수원·강화 지역 유적지에 다녀왔다.

2017 청소년가족봉사단 발대식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지난 달 11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7 청소년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가족봉사단 선서를 시작으로 OX퀴즈로 풀어보는 자원봉사교육과 전래놀이 3종세트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청소년가족봉사단은 2001년 6가족으로 시작해 올해 30가족 1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머체왓 숲길 걷기 활동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달 1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과장 한성민) 직원들과 '머체왓 숲길 걷기' 활동을 함께 했다.

이번 숲길 걷기 활동은 거주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희망나르미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한성민 과장은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배식'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달 7일 복지관 1층 경로당에서 '단배식' 행사를 실시했다.

매년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 행사에 지역주민 2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아라어린이집 원아들이 공연을 시작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LH관리사무소, 임차인회, 청년회, 노인회가 공동 진행했다.

어르신 댄스동아리팀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는 지난 달 14일부터 올해 7월달까지 6개월간 어르신 댄스동아리팀을 구성해 차차차, 롬바, 자이브 등 음악에 맞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월·화요일 어르신 댄스동아리팀은 지역주민 중 70~80대 남녀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주2회, 1시간씩 자발적인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 찾아 새해인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1월 31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웃 주민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유수암 노인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께 새해인사를 드렸다.

지역어르신들을 찾아 세배를 올리며 덕담을 나눈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친교를 높이고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진행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지난 달 15일 지역네트워크 연계 사업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는 '2017년도 제1회 찾아가는 상담의 날'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 정보제공과 함께 사용 중인 기기의 불편사항을 상담 후 현장에서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린이 한자교실' 운영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제주시 지원을 받아 지역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한자교실'을 오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1회 운영한다.

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이번 '어린이 한자교실'은 한자쓰기, 사자성어, 급수별 한자교육, 게임을 통한 한자익히기 등 1시간씩 총 44회로 구성, 운영된다.

'향기가 있는 사회로 한걸음' 수료식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 달 2일 지난 2016년 10월부터 15회기로 진행한 프로그램 '향기가 있는 사회로 한걸음' 수료식을 가졌다.

발달장애인 수준에 맞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처방법 성교육 프로그램을 끝으로 '향기가 있는 사회로 한걸음' 교육 80%이상 참여한 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노숙인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은 지난 달 17일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2층 쉼터에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에 노숙인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지난겨울 모금한 성금 120여만원을 통해 라면과 현금으로 구성된 이번 후원물품은 노숙인(희망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여질 계획이다.

시론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갖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최근에는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카페인’이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카페인 우울증’은 SNS를 보면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우울증을 말한다. 즉, SNS의 틀에 갇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쌓으며 성장하는 존재이다.

관계를 위한 자기성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관계와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신과의 소통에도 집중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관계에 집중하면 타인의 감정과 시선에 집중하게 되어 타인에 쉽게 휘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신과 소통을 하는 사람은 마치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과 만나는 시간 갖기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기쓰기를 추천한다. 일기는 일과를 기록하며 반성하는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그날의 경험이나 감정 등 자신과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한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하게 되는 자기치유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글쓰기가 불편한 사람은 녹음방식을 선택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하루에 잠시라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자 자기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에서 자기성찰이 중요한 현장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현장, 전문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중립적 역할과 윤리적 딜레마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더 나아가 소진을 줄이고 자기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나를 사랑하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갖는 힘이다.



고보선

제주국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고

희망 차롱에 담은 행복한 마음,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안진숙

환경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방송 공익광고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다. “나누는 기쁨, 행복한 마음을 담은 희망 차롱”에 대한 광고이다. 오늘도 희망 차롱 광고를 들으면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

『희망』은 앞으로 잘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차롱』은 도시락 형태의 대나무로 만든 그릇으로서 옛 제주 선조들은 이웃집에 나눠 줄 음식을 차롱에 담아 보냈다.

환경면에는 저소득층의 희

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던 개인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데 모여 보다 구체적인 나눔의 그림을 그리면서 희망 차롱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혼자라면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면 희망 차롱에는 행복한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하였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정유년 새해에는 많은 독지가들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졌다.

환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발 1주년, 행복설계 사례관리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17가구에 대하여 17명의 회원이 1:1로 후원결연을 맺

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쉽게 문화와 여가 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랑 나눔 체험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절기에는 74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방역서비스, 예초작업, 노후방충망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해주는 「건강한 집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희망을 나눠주었다.

희망 차롱을 채워가는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올 한해도 환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희망 차롱에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따뜻한 희망을 나눠 줄 것이다.

칼럼

버스 타는 사람들

나다니는 데 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다. 바쁜 시간엔 꼭 차 좌석이 입석 버스가 된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때도 있다. 콩나물시루가 되는 것이다.

7,80년대, 버스 타고 고산동산을 오르내리던 옛일이 떠올라 웃음이 난다. 아라동 쪽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몰려 있어 등·하교 시간엔 시내버스 안이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였다. 그때, J여고에 재직하던 나도 출퇴근 버스 안에서 어지간히 시달렸다. 자가용이 대중화하기 전,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시절 얘기다.

나는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닌다. 버스에 몸을 맡기게 되는 소요시간 길어서 50여 분이 무료하지 않다. 건물에 내려앉는 햇살이 싱그러워 숨 쉬는 도시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눈앞엔 진화하는 도시 디자인. 그것들에게서 사유의 실마리가 잡히면 수첩을 꺼내 몇 줄 적어 둔다. 버스 타고 오가며 하는 메모는 뜻밖의 소득이다. 도량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 버스에서 내린 뒤의 발걸음이 가볍다.

아침저녁 시간 빼고 한낮엔 승객이 노년층이거나 부녀자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들, 차를 갖지 못한 도시서민들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흔들림 없이 올곧은 삶을 사는 그들

오일장이 서는 날, 버스는 장 보러 가고 오는 사람들로 만원이 된다. 등에 짐을 잔뜩 진채로 자리에 비벼 앉는 사람도 있다. 곡물이거나 풋풋한 채소들, 장에 내어 팔아야 하니 버스가 어서 빨리 가기를 바라는 표정이다. 흠내·땀내로 콧속이 진동할 때도 있다. 옛날 밭 매던 어머니와 누이에게서 풍겨나던 익숙한 냄새다. 버스는 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수단이다.

버스 타는 사람들은 무표정하나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다. 그들의 얼굴엔 ‘버스가 내 분(分)이다. 주어진 대로 사는 자족한 삶이 평안’이라 씩어 있다. 부족하고 미흡해도 불만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가진 게 없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고 맘다잡고 사는 사람들, 버스 타고 이 섬을 뺏집으로 이고, 이 나라를 등점으로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흔들림 없이 올곧은 삶을 사는 그들이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정치인 얘기가 곧잘 회자된다.

그게 선거철만 오면 반짝 나타나 는 쇼맨십이라면 가슴 아픈 일이다. 거짓부리의 말과 행동은 공허하다.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삶에 댄 진정성을 한 수 배울 일이다.



김길용

시인·수필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⑧



허철훈(61) 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 일은 마라톤과 같아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19명 선발에 246명 지원, 12.9대 1의 경쟁률’ 올해 4월에 치러지는 제주도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다.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열기가 만만치 않다. 남다른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일선 현장 사회복지사의 선배이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배로서 30여년 사회복지현장에 몸담다 지난 해 퇴직한 허철훈 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을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여덟 번째 인물로 만나 보았다.



그와 사회복지의 인연은 우연찮게 시작된다.

“군 제대 후에 성이시돌농촌사랑 개발협회 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했어요. 협회 직원 중에 양로원 직원으로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찾다보니 당시 백 여명에 이르는 직원 중에 저가 선택되었어요.”

그 후 그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1983년부터 성이시돌양로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된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직접 장례를 치루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린 나이에 시신을 책임지고 모시는 일이 큰 부담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며칠 동안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는 “지금도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들거예요. 이 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라며 후배들을 위한 걱정도 잊지 않는다.

성이시돌양로원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지 10년 가까이 될 무렵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

“다소 늦었다 싶은 나이여서 선풍 나서기가 꺼렸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1993년 8월 복제주군 환경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3기)으로 공직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공직생활을 하며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보다 지난 2004년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일. 제주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는 1호 사례라는 명예에 앞서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기술자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사랑의 집 고

쳐주기’ 사업이 행정자치부사업으로 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보급되는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활발한 사회복지분야 정책제안 활동 등 그의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나를 성과를 얻은 현장경험이 있는 그에게 민간사회복지현장과 행정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자 그는 “민관협력은 민간의 이해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서 ‘업무과부하 상태’인 후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 2013년 7월 오일장에서 허철훈 전 과장이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모습.

“복지예산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고 쏟아지다시피 하는 수많은 정책들은 갈때기처럼 최일선 현장인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물리고 있어요. 각종 정책·시책을 내려보내기만 하면 현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증원인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당장에 인력증원이 어렵다면 업무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명절때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물품을

배분하느라 1주일 내내 고생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도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해 중복서비스 제공을 막고, 위문품 전달도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개선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부담이 확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유사중복 정책과 시책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조정기능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저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에 재직(그는 제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1호 사무관이기도 하다.)해 봤지만 그 많은 복지정책과 시책들을 다 꿰차기 힘들더라고요. 뿌리기에만 급급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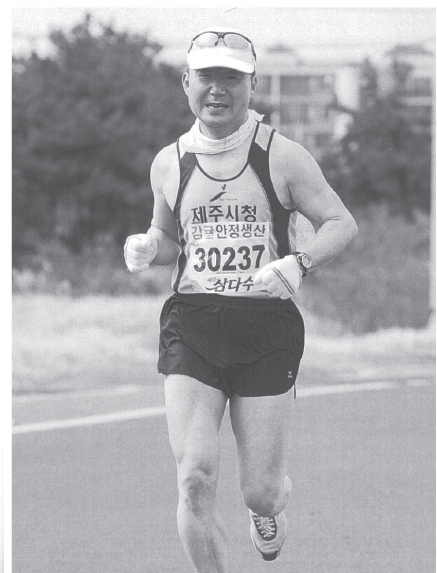
비록 퇴직 이후 자신을 위한 쉼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에는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걱정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어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업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기만의 멘토를 뒤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의 활력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름난 마라토너이기도 하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 컸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산책길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끌리더라구요. 당시에는 동호회가 없어서 혼자 뛰다가 ‘막달리자’라는 복제주군 공무원 마라톤 동호회도 조직했어요. 1주일에 100킬로미씩은 거뜰히 뛰고 다녔죠.”

도내외 각종 대회는 물론 일본대회에도 참가를 하며 마라톤 풀코스 5회, 하프코스 50회를 완주한 그에

게 있어 마라톤은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위한 최고의 친구이자 멘토였으리라.



▲ 허철훈 전 과장이 ‘2009 MBC 평화마라톤’에 참가해 뛰고 있다.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생활까지 33여년 동안 사회복지와 함께 해 온 그에게 있어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란 제가 즐겨하던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제 신념과 철학에 충실하기 위해 지난 33여년 민간 복지현장과 공직에서 지내온 것 같아요. 지금은 기분 좋게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있는 그가 앞으로 더 힘차게 뛸 마라톤 레이스의 성공적인 완주를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정리 -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시회복지소식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탐방

(85)제주도농아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채널 운영

문화예술·가족지원·직업훈련프로그램 등 사업 다양

전국에 몇 안되는 청각언어장애인 전문복지관인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 이하 복지관)을 지난 달 17일 방문했다.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산하시설로 제주 농아인의 아버지라 불리던 故 오원국 이사장이 외도동 부지에 자신의 사비를 출연 2005년 7월 1일 설립됐다.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이뤄진 복지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물론, 제주시지역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타 유형의 장애인과 서부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진행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은 32명으로 반 이상의 직원이 일반 수화를 할 수 있으며 3명의 직원은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자격을 갖고 있다. 또한 5명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다.

복지관 주요사업에는 수어연구센터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이 있다.

수어연구센터는 도내·외 지역별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수집·보존·기록하고 수어방송채널 운영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예술프로그램사업은 문화예술교실, 가온누리장애인예술단 운영과 청각언어장애인들로 구성된 밴드 라온제나를 통해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 향상하고 정기적인 공연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는 장애아동부모, 장애아동,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실시, 가족관계개선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긍정적

기능회복에 도움을 준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에는 커피바리스타·제과제빵·3D프린팅·목공·공예·아트교실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 함께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도 실시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업’은 무엇일까? 복지관 설립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김혜란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14년 청각언어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서전집필사업-인생예찬’을 이야기했다.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가장의 권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김 사무국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과 상처, 가족 간

오해 등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전부 담았다”고 설명했다.

“자서전 집필과정 중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자서전 원고를 읽었어요. 어렸을 적 오해했던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출판식에서 환하게 웃던 그 가족이 가장 기억난다며 책 한권을 내밀었다.

책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제주도농아복지관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40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로 활동하며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알고 지내던 사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참동안 돌려받지 못하여 속만 끓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매우 많은데, 차용증을 작

성하지 않아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간의 문제, 즉 소멸시효 문제이다.

◆ 소멸시효 제도

‘빌려준 돈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속설이 있는데, 소멸시효를 한마디로 쉽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제162조 제1항)하고 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이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다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여도 승소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이다.

돈을 빌려갔으면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갚아야지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불만이 있는 채권자들이 많지만,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

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채권 소멸시효 기간

우리 민법에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기본적으로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로 기간을 짧게 정한 경우들(단기소멸시효)이 있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치료, 조제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채권이나 변호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학생들의 수업료 등은 매우 짧은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고 채권자는 법적 절차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거나 연장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7년 1월 1일에 친구에게 100만원을 1년간 빌려준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2007년 12월 31일부터 10년 후인 2017년 12월 31일 전에 소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A씨는 10년마다 1번씩 동일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